

문예진흥기금 사업 대폭 지방으로 이관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예술정책 발표(상보)

박창욱 기자 | 09/03 16:43 | 조회 409

오늘의 인기 태그 : [안재환](#) [김정일](#) [청와대](#) [이명박](#)

태그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며, 우수한 분야에 대해 정책지원을 집중하는 등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기조가 바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며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한 예술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지방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서민계층 풀뿌리 문화나눔 사업 등이 그 대상으로 규모는 문예진흥기금 총 사업 예산 가운데 32%인 248억원에 달한다.

유 장관은 또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한 작품에 대해 선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창작팩토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서 대본 공모를 통해 최우수 1개 작품에 2000만원, 우수작 2개 작품에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쇼케이스 공모에서는 6개 작품을 선별하여 제작 구상 단계의 작품을 시범 공연으로 실현할 기회를 주며, 제작 지원에 선정된 작품에는 뮤지컬 최고 1억원, 연극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공연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작품이 생명력을 갖도록 돕는 등 대본에서 재공연까지 길게는 3년 단위의 중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립예술단체들이 시장 논리에 매달리지 않고 순수하게 창작에만 집중하도록 해 장르별로 국가 브랜드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대신, 단원 정기 오디션 의무화 등 경쟁 체제를 도입해 운영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예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문화가 도구가 아닌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는 정책△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창조적으로 활용되는 정책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 영역을 통섭하는 창의적 소프트파워 배양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등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 위주로 이번 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일문 일답.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문화예술위가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건 아니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살려내는 등 집중적인 정책지원 기능은 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예술지원 등 여러 공모사업을 지역에 맞게 개편하고, 지역에서 직접 한다는 것으로 지역간의 경쟁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발전 시켜보자는 취지다.

- 지방 문화에 대한 지원이 질적으로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에 대한 기금배분 비율은 6대 4지만, 궁극적으로는 5대 5로 가야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매칭펀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립예술기관을 특화시킬 경우 그 동안의 대중 친화 노력 후퇴,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문화재단을 운영하며 경험한 바 있다. 현재 국립예술단체들이 많이 정체돼 있다. 내부의 창작의 열기나 실험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내부 구조를 바꾸면 성과보수도 줄 것이다. 내부 구조개혁에 대한 주문이 각 단체에게 전달이 됐고, 단체들이 나름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연말쯤에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 본다.

▶ 인포머셜

- [\[AD\]신용조회없이 은행권 나의대출한도보기](#)
- [\[AD\]고품격 솔루션전문업체 Moaplus7](#)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자세히보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 기사에 대한 URL :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90316233460070&type=1>